

1964~

KOH Myung Keun

고명근

The DMZ is like a broken bridge.

It is a barrier in our minds.

It is unreal how the heart is severed while standing in this place.

It felt the same when I stood here in front of this wired fence twenty years ago.

My father spent 60 years hating this wall, and passed away without anything changing.

This is a place where heedless wild animals breathe and where the exhausted youth of this land are buried.

Excerpt from Artist's Statement in May 2010

DMZ는 가로막힘이다. 마음의 벽이다.

이곳에 서면 마음이 단절되고 기가 막힌다.

20년 전 이 철책 앞에 서 있었을 때에도 그러했었다.

나의 아버지는 60년을 이 벽을 원망하다, 끝내 그냥 가셨다.

무심한 산짐승들의 한숨과 이땅의 젊은이들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곳.

작업노트 중에서 2010. 5



The use of transparency helped develop a new phase within my work, which had for a long time been concerned with structure and imagery.

I believe that the essence of art lies not in the artwork but in the perspective brought by the viewers. Or in other words, I assume that being seen is less important than seeing, and therefore the act of seeing is a crucial part of art. Transparency helps visualize the momentary nature of time and the void of space. It allows us to see inner space, to experience its overlaps with external space, and to experience a spatiality which appears different each time according to the angle of viewing.

Seen in this way, my transparent containers bring forth the viewers' intention to see, and they serve as an incubator which generates new images.

Excerpt from Artist's Statement in September 2007

투명체는 구조와 이미지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나의 작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열었고, 동시에 내가 표현한 그 무엇, 앞서 말한 예술의 실체를 표현하는데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예술의 본질이 예술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그 의도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즉, 보여지는 것 보다는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보는 행위자체가 미술의 '요체要諦' 라는 것이다. 투명성은 시간의 찰나성과 공간의 비어있음을 형상화시킨다. 내부의 공간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바깥 공간과 겹쳐지는 내부의 공간을 함께 느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공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나의 투명한 용기용기는 보려는 의도를 끌어내면서 또한 그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를 스스로 창출해 내는 '산실産室' 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작업노트 중에서, 2007.9





I recall the days that I spent at the DMZ as a budding military man.
They were all about steps.
I had to pace up and down the numerous steps, dozens of time every day.
And the ankle mines...
Horrifying explosions where an ankle is blown off. They wait for a youthful leg somewhere within the forest.

Excerpt from Artist's Statement in March 2010

DMZ의 초병생활이 아련히 떠오른다.
계단...계단의 연속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또 내렸다.
그리고 발목지뢰...
한쪽 발목만 잘라먹는
기분 나쁜 존재
숲속 어디선가에서 젊은 다리를 기다리던
두려운 존재

작업노트 중에서 2010. 3

